

한가위에 드리는  
가 정 예 배



2010년 9월 22일

기 독 교  
대한감리회 **청 파 교 회**

# 추석감사예배 순서

예배초대 ----- 인도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명절 아침에 가족  
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 살전5:16-18 ----- 인도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니라

찬 송 ----- 588(307)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 다같이

교독문 ----- 64번 ----- 다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도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회중)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기 도 ----- 말은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나?"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욕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설 교 ----- 아무 것도 바라는 것 없이 ----- 가족중

찬 송 ----- 301(460)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다같이

**<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

1. 예배 전 기도자와 설교자를 미리 선정합니다.
2. 예배는 가족 중 믿음의 연장자가 인도합니다.
3. 가족 중 세상을 떠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설교 전에 마련합니다. 그분에 대해 인상 깊었던 일들이나 함께 나눌만한 일화 등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4. 예배 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 한 마디씩 나누도록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결혼이나 취업 이야기는 삼가주세요 ^^)

**※ 본 순서지는 재생용지를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서는 욕이 매우 자랑스러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이 흠이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사탄도 욕의 온전한 모습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탄이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은 욕 자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욕이 "거저",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까닭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적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동기가 보상에 근거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복을 받지 못해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키나 갈 수 있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행16:31), "너희는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놓아 .....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말3:10) 몇 가지 예만 보아도, 성서 자체 안에서 믿음과 믿음의 보상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라고 사탄이 한 말은 성서적으로 보아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욕기를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 고백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참된 믿음을 통하여, 아직 받지 못한 복에 애타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복을 기쁘게 누리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